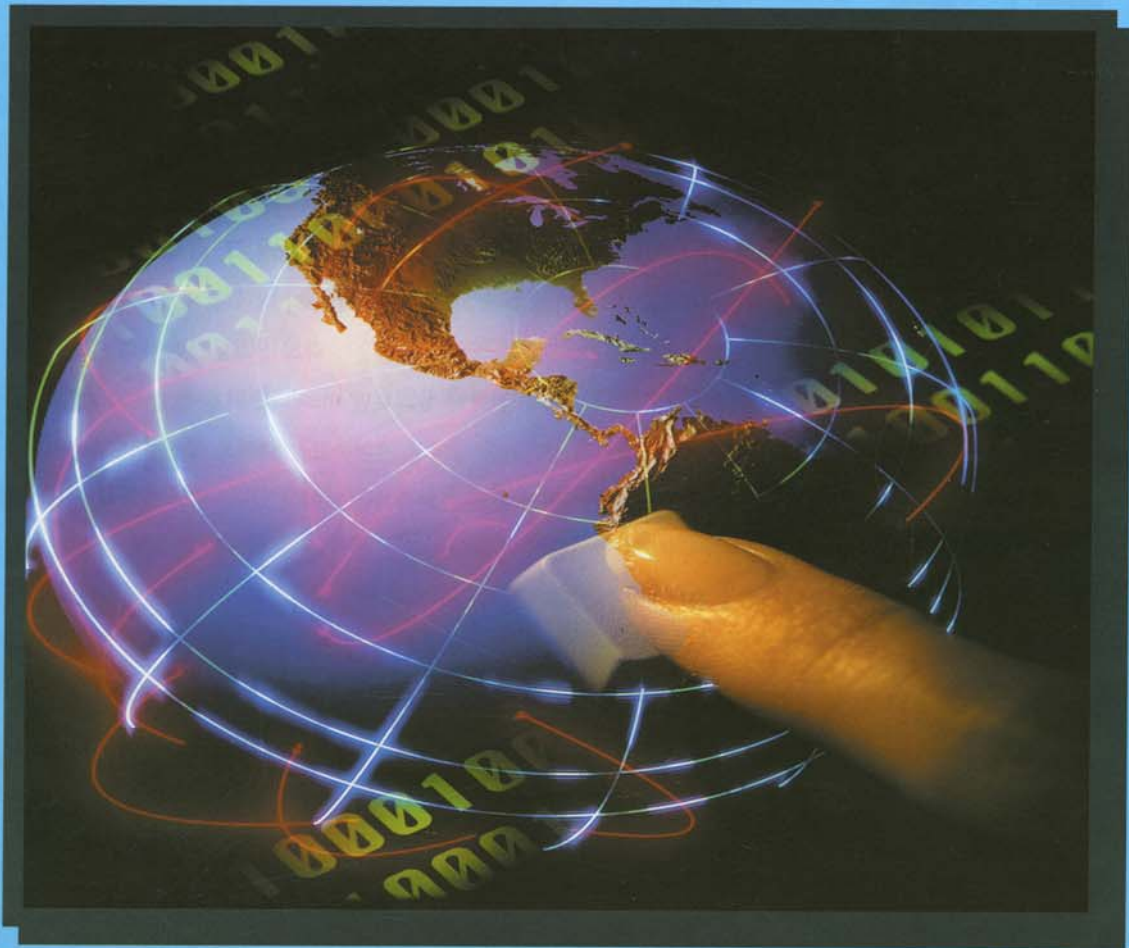


산학리뷰

2003년 12월 / 제14권 제12호 (통권 152호)



CONTENTS

2003. **12**

- 2 • 산학칼럼 / 지역경제의 회고와 전망 6 • 이달의 쟁점 / 대구경북과학기술원(DKIST) 설립의 기본정신
 9 • 경영·기술정보 / 우리지역기업의 살길 : 공동브랜드 전략을 실천할 때 12 • 제163차 월례세미나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혁신시스템의 구축
 23 • 짧은 상식, 긴 여운 / 안개가 끼면 비행기가 이착륙하지 못하는 이유 24 • 대덕단상 / 영호남이 손잡아야 균형발전 된다!
 26 • 연구원 소식 27 • 회원동정 30 • 신착도서목록 31 • 연구원 소개 및 회원가입 안내



社 團 產 學 經 營 技 術 研 究 院
 UNIVERSITY-INDUSTRY RESEARCH INSTITUTE



지역경제의 회고와 전망

김주훈 |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장

대구·경북지역 경제는 금년들어 섬유산업의 부진심화 등으로 제조업 생산이 둔화되고 소비도 위축된 모습을 보여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대구지역 제조업 생산이 9월 이후 2개월 연속 증가하고 경북지역의 생산호조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기업경기 BSI 등 심리지표도 소폭 회복되는 등 다소나마 개선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가면서 새로운 해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 시점에서 우리 나라와 세계경제의 동향 및 전망과 함께 지역경제의 금년중 흐름과 내년중 전망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금년중 세계경제의 흐름을 간략히 살펴보면 미-이라크전쟁 발발 및 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등의 영향으로 상반기중 중국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부진한 모습을 보여 온 주요국 경제가 하반기 들어서면서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우선 미국의 경우 3/4분기 GDP성장률이 8.2%(전기대비 연율기준)의 높은 수준을 기록한 데 이어 10월 들어서도 산업생산과 고용사정이 개선되는 등 뚜렷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

또한 유로지역도 3/4분기 GDP가 전기대비 0.4% 성장하고 여러 심리지표가 개선되는 등 부진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으며 일본경제의 회복세도 점차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 주가는 최근 다우존스 지수가 10,000포인트를 돌파하는 호조세를 보이고 있으며 여타 주요국 주가도 강세를 시현하고 있다. 한편 미달러화는 미정부의 달러화 약세 유도방침 이후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제유가는 최근 중동지역 정세불안 등으로 다시 서부텍사스중질유(WTI)기준으로 30달러를 상회하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자. 우선 금년 들어 우리 경제는 미-이라크전쟁, SARS, 북핵문제, SK글로벌사태, 잦은 강우 등의 영향으로 8월까지의 경기가 매우 부진하였으나 9월 이후 수출이 급신장하면서 제조업생산이 뚜렷이 활기를 되찾는 등 회복 움직임을 가시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분기별로 살펴보면 지난 1/4분기중에는 북핵위기라는 지정학적 위협, 미-이라크전쟁, SARS 확산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물가가 큰 폭으로 오르고 경상수지도 악화되었다.

2/4분기 들어서는 이라크전쟁 조기 종결로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경상수지 개선과 함께 물가도 안정을 되찾았으나 경기부진은 더욱 심화되어 GDP성장률은 1.9%에 그쳤다.

내년중에는 세계 및 우리경제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구·경북지역 경제도 금년보다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금년중 침체를 면치 못하였던 대구 경제는 최근 9, 10월중 산업생산이 증가로 반전되는 등 다소 희망적인 변화를 감안할 때 내년에는 그동안의 부진에서 점차 탈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3/4분기에 들어서는 수출과 건설투자의 증가세 확대로 GDP는 전년동기대비 2.3% 증가하여 다소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4/4분기들어에서도 소비는 여전히 부진하나 수출의 급신장으로 제조업생산이 활발해지고 제조업 가동률이 높아지는 등 개선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수출은 9월 이후 3개월 연속 20%대의 높은 증가세를 보여 우리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장기시장금리는 SK글로벌 분식회계 파문과 신용카드사 문제 등의 영향으로 등락을 거듭하다가 10월 이후에는 경기회복 기대감 등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주가는 이라크전쟁 종결을 전후하여 미국 등 주요국 증시의 상승 및 외국인 순매수 규모 확대 등으로 대체로 상승세를 나타내어 종합 주가지수는 전년말의 627.6에서 12월 15일 현재 822.2로 31.0%가 상승하였다.

원/달러환율은 1/4분기중 북핵문제를 둘러싼 지정학적 위험 등으로 전년말의 달러당 1,186.2원에서 3월말에는 달러당 1,254.6원으로 크게 상승하였으나 이후 달러화의 약세,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유입 등으로 한 때 달러당 1,147.2원까지 하락하였다가 10월 중순 이후 카드사 문제로 인한 불안심리 등으로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 12월 15일 현재는 달러당 1,182.8원대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세계경제 및 국내 경제의 전반적인 움직임 속

에서 금년중 지역경제의 움직임을 살펴보자. 금년도 지역경제의 특징을 요약하면 섬유산업의 부진심화로 제조업생산이 둔화되고 소비도 부진한 모습을 보인 반면 수출은 전자·통신 및 철강제품을 중심으로 연중 호조를 보여 수출이 지역경제에서도 버팀목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역별로는 대구지역이 주력산업인 섬유산업의 침체로 부진한 모습을 보인 반면 경북지역은 전자·통신산업의 활황으로 호조를 보여 지역간 경기격차가 지속되는 모습을 보였다. 부문별로 보면 제조업생산의 경우 전반적으로 지난해에 비해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대구지역의 경우 주력 업종인 섬유산업의 부진심화로 금년 1~10월중 전년동기대비 0.4% 감소하였는데 이는 동 기간중 제조업 전국평균이 4.3%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부진한 모습이다.

반면 경북지역은 전자·통신 및 철강산업의 호조에 힘입어 동 기간중 전년동기대비 10.5% 증가하는 양호한 모습을 보였으나 전년에 비해서는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었다. 그러나 9월 이후 대구지역의 제조업생산이 자동차부품 및 기계장비 부문 등의 호조로 소폭의 증가로 반전되고 기업경기 및 자금사정 BSI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등은 내년도 지역경제 전망에 긍정적 신호라 하겠다.

개별산업 측면에서 보면 휴대폰, LCD 등을 중심으로 한 전자·통신산업과 철강산업의 호조는 경북지역경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경제를 견인하였다. 대구지역의 경우 섬유산업이 내수부진과 세계시장에서의 중국 등과의 경쟁격화 등으로 부진이 심화된 반면 자동차부품 산업이 완성차 업체의 호황과 수출호조 등으로, 기계장비산업이 섬유기계를 중심으로 호조를 보임으로써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소비는 금년 2월 롯데백화점 대구역사점의 개점 효과와 설 등으로 1/4분기중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였으나 이후에는 경기회복 지연에 따라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었다. 지역 건설경기는 재건축사업을 중심으로한 민간주택사업의 호조, 수해복구를 중심으로한 SOC공사 증가 등으로 민간 및 공공부분이 모두 양호한 모습을 보여 금년 1~10월중 건축허가면적이 전년동기대비 23.2% 증가하여 전국 평균 수준인 4.3%를 크게 상회하였다.

고용측면에서는 대구지역의 실업률이 금년 1~11월중 전년(4.0%)보다 소폭 상승한 4.1%를 기록한 반면 경북지역은 지역경기의 상대적 호조를 반영하여 2.0%의 낮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금년 1~11월중 대구·경북지역의 수출은 전자·통신 및 철강·금속제품 등이 대중국 수출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한 데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38.3% 늘어나 증가폭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특히 9월 이후에는 증가율이 40%선을 상회하는 호조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대구지역의 수출이 7.7% 증가에 그친 반면 경북지역은 42.8%에 달해 지역간 격차가 크게 났으며 특히 대구지역의 섬유수출은 기간중 7.9% 감소하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 2004년중 지역 경제는 어떠한 모습을 보일 것인지 한 번 생각해 보자. 우선 내년중 세계경제는 금년

보다 성장세가 확대될 전망이다. 미국경제는 그동안 부진하던 개인소비와 설비투자의 회복세가 가시화되고 고용여건도 점진적으로 개선되면서 잠재성장율을 웃도는 4% 내외의 높은 성장이 예상된다. 일본경제도 디플레의 우려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설비투자의 회복과 함께 고용사정의 개선이 내수에도 영향을 미쳐 1%대 후반의 꾸준한 성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유로지역도 비슷한 수준의 성장이 예상되고 중국은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8%에 가까운 고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경제의 회복가속으로 세계교역 신장세가 내년중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는 국제유가는 미·이라크 전쟁의 영향이 점차 줄어들면서 내년 2/4분기 이후에는 안정될 것으로 보이며 미달러화는 미국의 경상수지 및 재정적자 확대 등으로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세계경제 여건은 중동정세 불안 및 테러확산 등 지정학적 리스크를 제외하면 우리 경제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국내적으로는 아직 노사갈등의 악화 가능성, 금융시장 불안, 북핵문제 등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상존해 있다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불안요인들이 더 악화되지 않을 경우 내년중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 성장세 확대에 따른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의 점진적 회복에 힘입어 성장율이 5.2%(한국은행 전망기준, 이하 동일)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소비는 교역조건 개선 등에 따른 실질소득 증가, 하반기 이후의 순차적 주5일 근무제 도입 등의 영향으로 금년의 감소에서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가계부채 및 신용불량자 문제로 인하여 3.2%정도의 미

약한 회복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설비투자는 수출호조 및 정부의 정책적 노력 등이 결합되어 상당히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나 과거와 같이 두 자리수의 큰 폭 증가는 어려운 전망이다. 수출도 11.6% 정도 늘어나는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설비투자의 회복에 따른 자본재 수입증가 등으로 수입증가세가 더 커져 상품 및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금년보다 적어질 전망이다.

이와 같이 내년중에는 세계 및 우리경제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구·경북지역 경제도 금년보다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금년중 침체를 면치 못하였던 대구 경제는 최근 9, 10월중 산업생산이 증가로 반전되는 등 다소 희망적인 변화를 감안할 때 내년에는 그동안의 부진에서 점차 탈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종별로 보면 섬유산업의 경우 국내외 수요증가로 업황이 다소 호전될 것으로 보이나 세계시장에서의 중국과의 경쟁격화 등은 여전히 큰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자동차부품산업은 최근의 수출호조가 지속되고 경기회복에 따른 내수회복 등으로 업황이 양호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구지역의 경우 GM대우차에 대한 납품비중이 높아 동사의 해외경영이 본격화될 경우 업황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한 전자·통신부문은 해외수요 증가 등에 따라 최근의 활황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철강산업은 건설경기 위축 등으로 금년보다 생산증가세는 둔화될 전망이다.

한편 지역건설경기는 민간주택건설 둔화 등에 따라 금년보다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며 소비도 대구지역의 경우 여타 지역보다 경기회복세가 더딜 것으로 예상되어 큰 폭의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수

출은 금년보다 증가세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지만 지역 최대 수출시장으로 부상한 중국의 경제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품질개선, 마케팅 등의 면에서 대중국 시장 공략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국내외 경제여건의 호전속에 지역경제가 성장의 기반을 확고히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선 최근 급신장세를 보이고 있는 전자·통신산업, 자동차부품산업, 1차 금속 등의 성장모멘텀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중기적으로 포스트밀라노 프로젝트 등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섬유 등 전통산업의 고부가가치화에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설립, 테크노밸리 및 한방바이오밸리 조성 등을 계기로 첨단산업 육성에 지역역량을 결집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금년 8월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당시 보여준 지역민들의 단합된 힘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지역경제 체질을 개선해 나간다면 지역경제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의 현재 8,014억원 규모로 운용되고 있는 총액한도 우선 대출제도를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육성 및 지역내 긴급자금수요 등에 적기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지역경제통계의 신속·정확한 편제 및 지역경제 현안사항에 대한 시의 적절한 관련보고서의 작성·배포 그리고 청소년 등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한 경제교육의 활성화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신뢰받는 중앙은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

아무쪼록 다가오는 새해에는 지역경제가 활짝 피어나 모두에게 활기차고 보람찬 한해가 되길 기원해 본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DKIST) 설립의 기본정신



이종현 | 경북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요즘 대구경북과학기술원(DKIST)의 설립방향에 대해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당장 영문명칭이 DKIST냐?, DGIST냐?, DIST냐? 하고 말들이 많다. 행정구역간의 자존심싸움이다. GIST(Global IST)는 어찌냐? 하고 제안한다면 경북에서 상을 받을 일이다. 이름은 DGIST로 하고, 입지는 시도의 경계에 걸쳐두고, 원장도 시에서 한번, 도에서 한번 하면 해결될 일인가?. 대구와 경북의 영문표기 변경도 우스운 일이다.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던 자기 이름을 그렇게 간단히 바꿔버릴 정도로 우리는 우물안 개구리가 아닌가? 국제사회의 세계인으로서 LEE교수와 RHEE 교수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인정된다.

또 산업현장의 공학기술을 개발하는 기관이냐?, 아니면 원천과학기술을 개발하는 기관이냐?, 입지는 어디로 해야 하는가?, 누가 리더가 될 것인가?, 설립 추진은 절차는 어떤가? 등등 많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전문인들로 구성된 설립 추진단에 전적으로 맡겨야 하며 누구도 강제하거나 간섭해서도 안 된다. 특히 입지의 문제는 여러 번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지만 온전히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될 일이며 시장이나 도지사, 국회의원들의 주장으로 결정될 일은 더욱이 아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빙하가 바로 우리 옆에서 녹고 있

다. 이것이 어떤 기후변화를 일으킬지 예측하려는 정부차원의 전문기관이 없다. 산동성에만 8600개 이상의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 뿌리를 내린 기업인들이 자신들을 표현하기를 '그물 속에 들어간 물고기'라고 했다. 언제 건져져서 팽개쳐질지를 모른다는 뜻이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관심도 없고, 마냥 제 밭그릇 지키기에만 정신이 없어 보인다.

국제관계는 급변하고 있고 오늘의 중국보다 가까운 내일의 중국이 한량없이 두렵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시대를 지식기반시대라고 한다. 새 시대가 오고, 지속적인 개혁과 혁신이 필요하다고 한다. 혁신을 부르짖으며 개선보다 개악의 길로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도 있다. 우리 지역에도 과학기술 혁신이 필요하다.

혁신은 '이대로는 안 된다. 내일이 없다'라는 각성과 성찰을 바탕으로 시작되어야 하며 내일을 위해 오늘을 투자하는 미래지향성을 내포하고 있다. 혁신은 시너지(synergy)의 구축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이 시너지의 조화가 항상성(homeostasis)을 이룬다. 이 항상성을 가진 조직은 스스로 진화(evolution)하는 엔진을 가지고 강건한 시스템(robust system)을 이룰 수 있다.

튼튼한 시스템은 끝임 없는 되먹임(feedback)을 통해

안정화되고 올바른 작동방향을 찾을 수 있다. 이 되먹임 회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평가(evaluation)이다. 평가는 곧 이 시스템의 두뇌이며, 판단이며, 명령어이며, 시스템의 모든 것이다.

국가, 지역사회, 대학, 기업, 연구소, 모든 조직이 이러한 시스템의 원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 우리 사회의 근원적인 병폐는 평가를 가볍게 보며, 또 그 결과를 신뢰하지 않고 또 수긍하지 않는 관행적 사고방식에 있다. 평가의 공정성과 정확성의 확보에 더 많은 돈과 노력을 투자해야 하며 이 근본의 혁신이 선행되어야 한다. 엄정하고 정확한 평가가 없으면 혁신도 진화도 있을 수 없다.

과거시대의 과학기술, 공학기술, 산업기술은 엄연히 구분되어 독자적으로 발전해 왔다. 과학기술은 자연의 원리를 탐구하는 기술, 공학기술은 그 원리를 인간의 삶에 응용하는 기술, 산업기술은 공학기술의 열매로 경제적 이윤을 창출하는 기술이다.

그러나 지금의 지식기반시대는 모든 기술 즉 과공산기(科·工·産·技)의 융합을 통해 신지식을 창출해 내는 시대이다. 정보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전문분야간의 지식교류가 용이해지며 기술융합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특히 오늘의 디지털시대에는 전자기술과 정보기술이 없는 생산공장, 연구소, 금융기관, 문화산업, 도시인프라 등을 생각할 수 없고, 최첨단의 전자정보기술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는 첨단산업을 기대할 수도 없다.

근래 우리 지역사회의 성장과 혁신을 가로막는 심각한 원인으로 산·학·관 협력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공부하지 않는 기업,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관료, 협동하지 않는 대학들이 모여서 서로 등을 대고 돌아앉아 '무식하고 오만한 고집불통'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상호간의 벽을 허물고 산학관의 시너지를 구축하기

위하여 연결자와 완충자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연구원의 기능이 절실히 필요하다. 교육만하는 대학에는 연구의 기능을, 생산만하는 기업에는 개발의 기능을, 또 지도감독만하는 관청에는 전문적 기획의 기능을 만들어 주는 것이 DKIST가 해야 할 하나의 중요한 역할이다. 자체적 연구를 수행하는 액터(actor)의 역할과 지역기술혁신의 조정자(coordinator)역할을 함께 수행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 먼저 산·학·관의 막혀있는 혈맥을 열어주기 위해 DKIST가 필요하다.

DKIST는 영리목적으로 설립되는 기관이 아니다. 과학기술혁신과 산업기술혁신을 통해 지역경제회생을 선도하기 위해 설립되는 공익기관이다. 공익목적의 기관에게 자립해서 스스로 생존하라는 것은 '이제 공익적 가치가 없으니 장사를 하던 문을 단단 마음대로 하라'는 말과 다를 바 없다. 변신하지 못하고 관료화 경직되어 있는 기존연구소들이 정부로부터 겪고 있는 수모이다.

DKIST의 자립방안은 공익적 가치의 유지에 있다. 'Structure follows strategy' 즉 생존을 위해 전략을 짜는 것이 아니라, 전략목표의 달성을 위해 조직을 운영한다는 의미이다. 이를 위한 몇 가지 운영의 원칙이 있다.

분산네트워크형의 H/W시설구축과 활용, 인센티브(incentive)주도의 스스로 진화하는 조직, 인소싱(in-sourcing)과 아웃소싱(out-sourcing)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유연한 인력운용, 투입에 대한 정량적 성과 산출, 등이다.

특히 고급인력의 운용에 있어서는, 개체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자기발전기회의 제공과 또한 도태의 길도 열어두어야 한다. R/D분야의 선정은 국내의 전문가 풀(expert pool)의 운용을 통해 결정되어야 하며, 지역의 현안과제인 IT, BT, NT, MT 의료, 방재 등등의 전문연구센터, 또



DKIST는 영리목적으로 설립되는 기관이 아니다. 과학기술혁신과 산업기술혁신을 통해 지역경제회생을 선도하기 위해 설립되는 공익기관이다. 공익 목적의 기관에게 자립해서 스스로 생존하라는 것은 '이제 공익적 가치가 없으니 장사를 하던 문을 닫던 마음대로 하라'는 말과 다를 바 없다. 번신하지 못하고 관료화 경직되어 있는 기존연구소들이 정부로부터 겪고 있는 수모이다. DKIST의 자립방안은 공익적 가치의 유지에 있다. 'Structure follows strategy' 즉 생존을 위해 전략을 짜는 것이 아니라, 전략목표의 달성을 위해 조직을 운영한다는 의미이다.

과급효과가 큰 고가장비센터, 협동연구단지 등이 설치되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포도송이를 보면 튼튼한 알맹이는 영양분을 빨아들여 크게 되는 반면에 말라 떨어지는 알맹이도 있다.

아집에 의한 고립은 자멸을 자초하며, 열린 공동학습(collective learning)을 통해 혁신하고 진화해야 성장할 수 있는 시대가 지식기반시대이다. 이 시대는 가져다주는(pumping)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빨아들여(sucking) 성장하는 시대이다.


또한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스스로 배울 능력을 갖추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시대이다. 창의와 도전의 경쟁을 회피하는 사람은 DKIST와 같은 혁신적인 기관에는 적합지 않다. 가장 비혁신적인 인물이 혁신을 주도하는 작금의 우(愚)를 다시 범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또 한 가지 중요한 DKIST사업은 인력의 배양이다. 우리지역의 산업기술 혁신을 이끄는 중심축도 광범위의 전자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정보기술이다.

IT는 산업자체로서보다 BT, NT 등을 포함하는 모든 산업을 '밀어주고 또 이끌어가는(push-pull)' 첨단기술의 중심축이다. 지역산업의 경쟁력상실도 전자정보산업의 육성이 모자랐기 때문이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전자정보기술은 그 속성자체가 신세대기술이다. 끊임없이 지속되는 연구와 신인력의 양성

배출이 있어야 세계적 첨단기술을 즉시 이해하고, 신기술을 창출하며, 첨단산업을 선도할 수 있다.

연구소의 설립 유치, 첨단기업의 유치 보육, 기술인력의 배양 유치, 이 삼박자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지역산업의 첨단화와 경쟁력회복의 시너지를 갖출 수 있다고 본다. 대구경북 산·학·관·민의 큰 협동정신이 필요한 시점이며 지역혁신의 시작은 협동과 학습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우리지역기업의 살길: 공동브랜드 전략을 실천할 때



안경주 | 베스트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한국에도 자랑스러운 브랜드가 적지 않다

우리 나라에도 100년을 넘는 브랜드가 있다. 1897년 탄생한 액체소화제 '활명수'는 국내 최장수 의약품으로 오늘날에도 애용되고 있으며 기네스북에도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 단순히 노익장만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까스 활명수', '까스 활명수 Q' 라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하고 있음이 저력이다. 한국의 자양강장제의 변치 않는 베스트셀러인 '박카스'는 1961년 처음 만들어졌다. 지금까지 팔린 병을 일렬로 세우면 지구를 40바퀴 돌고도 남는다고 한다. '박카스'는 1981년 UAE(아랍에미레이트)로 수출이 시작된 후 지금까지도 세계 주요 시장을 돌고 있다.

한국이 만든 세계 최초의 초코렛을 입힌 파인인 초코파이, 그 선두주자인 '오리온 초코파이'는 남녀노소 세계인의 간식이다. 이제 초코파이는 하나의 먹거리로 보통명사로 통용되고 있다. 핸드폰 '애니콜'은 그 품질과 디자인으로 IT강국 한국의 명성을 드높게 하는 브랜드이다. '애니콜'을 갖기 위해 세계의 대학생들은 고된 아르바이트를 마다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처럼 우리 나라의 자랑스러운 브랜드가 세계에서도 통하는 브랜드가 되고 있다.

제대로 평가 못 받는 한국브랜드

그러나, 매년 세계 기업들의 브랜드 가치를 조사하는 영국의 인터브랜드사가 미국 뉴스위크지와 공동으로 발표하는 세계 100대 브랜드를 보면, 아직 한국의 브랜드는 크게 눈에 띄지 않는 것 같다. 세계 10대 브랜드 속에 이미 소니를 비롯하여 일본 브랜드 3~4개 정도는 항상 있는데, 한국의 대표 브랜드 삼성전자는 아직 40위 속에도 들지 못한다.

지난해 100대 브랜드에서 1위를 차지한 한 코카콜라의 유형자산은 60억불 정도에 불과하지만, 코카콜라의 브랜드 가치를 돈으로 계산하면 650억불을 넘는다. 코카콜라의 유형자산을 모두 합쳐도 브랜드 자산 가치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친다. 코카콜라의 브랜드 담당자 산체스 라메라스는 "코카콜라

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이유는 맛뿐만 아니라 스펀스체의 독특한 로고, 빨간 색 아이콘, 콘투어 병, 북극곰 캐릭터 등으로 상징되는 브랜드 자산 때문이다”라고 브랜드의 파워를 자랑하고 있다.

“제품 브랜드가 기업주식가치의 30% 이상을 차지하며, 세계적인 브랜드일수록 그 가치는 더욱 커진다.”고 인터브랜드사는 밝히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서 보면 삼성전자의 가치는 코카콜라의 1/8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월드컵을 통해 창출된 위대한 코리아 (The Great Republic of Korea)!, 세계 일류 국가들의 모임인 OECD 반열에 있는 한국이 세계 일류 브랜드 반열에서는 형편없이 평가 절하되어 있는 셈이다.

2010 세계적인 브랜드 비전

브랜드 가치는 기업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수단이다. 정부는 이같은 브랜드 경쟁력의 중요성을 새삼 자각하고 '2010년 브랜드 비전과 경쟁력 강화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브랜드 강국을 만들기 위해, 고유 브랜드 수출비율을 현재 28%에서 2005년은 50%, 2010년까지는 70%까지 확대시키겠다고 한다. 또한, 세계 100대 브랜드 대열 속에 국내 기업의 브랜드가 2005년까지는 3개, 2010년까지는 10개까지 당당히 속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주: 산업자원부가 2002년9월 발표한 "상표, 기업,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브랜드 경쟁력 강화방안"에서 인용)

이 계획들이 순조롭게 추진되면 아마 2010년경에는 지금 세계적인 브랜드 인지도를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 삼성, 현대, LG, 대우, 기아 등 대기업 브랜드의 세계적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에 따라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여 품질에 상응하는 고가화 전략을 수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꼭 필요한 것이며 상당히 고무적인 비전이기도 하다.

중소기업의 브랜드 경영 현실

그러나,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수출산업실태조사(2000년도)를 보면, 전체 수출에서 자신의 고유 브랜드 수출비율은 28.8%에 불과하고, 그중에서 중소기업이 자신의 브랜드로 수출하는 비중은 25.6%에 불과하다. 아직도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자기 상품의 이름 없이 제품만을 수출 한다는 것이다. 또한,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2백여 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국내기업의 브랜드 실태조사' (2003년도)를 보면, 많은 기업들이 수익성향상과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해 독자 브랜드 도입을 생각하고 있으며, 독자 브랜드 도입이후에는 경영 실적이 향상되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기업들이 (조사대상의 47.1%) 국내 및 국외에서 브랜드가 도입되어 직접적인 피해를 입거나 경쟁업체들이 자사 브랜드와 유사한 브랜드를 출시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독자 브랜드 경영이 기업경쟁력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토로하고 있다. 이처럼 브랜드 경영의 중요성을 누구도 부정하지 않고 있으나, 실제로 중소기업으로서는 단기적 채산성 때문에 또는 기업의 브랜드 개발능력 내지 관리역력 부족으로 인해 브랜드 경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는 브랜드가 상품경쟁력의 핵심이 되어가는 시대에서 중소


기업 특히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브랜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 일 것이다.

그 대안의 하나 : 공동브랜드를 만들자

아쉽게도 우리 지역은 섬유와 패션 디자인 관련 산업 부문에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의 도약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로 필자는 지역기업이 브랜드 경영을 소홀히 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왜냐하면, 고부가가치에는 브랜드 전략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오늘날은 '제품이 아닌 브랜드를 사는 시대이다.' 공장에서 제조되는 것은 제품이지만 소비자가 사는 것은 브랜드이다. 같은 재료를 쓴, 똑 같은 성능의 물건이라도 어느 브랜드가 붙느냐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게 난다. 같은 화질의 TV에 소니 브랜드가 붙어 있는 가 아닌 가에 따라 20%의 가격차가 난다. 제 값을 받으려면 이제 브랜드를 빼 놓고 생각할 수 없다.

양산. 우산의 경우 대구지역의 특화산업으로 지정되어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대부분 하청에 의존하고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을 못 벗어나고 있어, 어쩌면 이름 없이 사라질지 모른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잘 알다시피 대구의 안경테 산업은 세계 4대 산지의 하나로 각광받으며 과반세기가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 OEM수출이 주종을 이루고 세계인이 알아주는 유명 브랜드로 손꼽을 수 있는 브랜드는 있는 것일까? 오히려 브랜드 과다 속에 브랜드 무력감에 빠져있지는 않은가?의류 패션의 경우도 3년을 넘는 브랜드를 찾아보기 어렵다. 한국의 섬유와 패션을 리딩하는 대구가 그 이름 값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필자의 짧은 소견으로서도 지방에서 유명 브랜드 하나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다. 자본도 있어야 하고, 전문 인력도 필요하고, 브랜드 경영을 뒷받침할 다른 인프라도 기업 내에 갖추어져야 하고, 정부의 지원도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모든 여건이 구비되지 않았다고 하여 브랜드 경영을 포기하거나, 그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지기 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 우리 지역기업이 할 수 있는 일부터 찾아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서 동종업계의 공동브랜드를 만들어 가는 것을 제안하고 싶다. 우선 동종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자체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브랜드를 선정하여 보자. 예를 들면, 대구 안경테 생산업체들이 모여 몇 개의 대표 브랜드를 선정하여 보자. 그리고 합심하여 브랜드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조건의 규약을 만들어 생산을 분업하는 대신 국내외 판매와 전시회 등 마케팅활동은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많은 자본이 소요되는 해외 홍보, 빅 이벤트 참가 등은 정부의 장기적인 지원을 받도록 설득해 나가자. 나아가 한국의 대표적인 패션 브랜드와 브랜드 간 결합을 통해 상호 윈윈(Win-Win)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브랜드 간 전략적 제휴를 해 보자. 천리 길도 한걸음부터이다. 이제 우리 발로 한걸음 씩 세계적인 브랜드를 키워나가야 할 때이다. 



국가금융발전을 위한 지역혁신시스템의 구축



편집자 주: 2003년 11월 6일(목)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개최된 본원 「제163차 월례세미나」의 발표내용 중 일부분을 요약정리하였다.

제1주제

지역산업발전을 위한 지역혁신시스템의 구축

이장우 | 경북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I. 실태조사 및 사례의 종합

- (1) 대구 지역 실태조사 → 수요자 중심적 대안의 실천
- (2) 실리콘밸리 사례 → 민간 이니셔티브의 활용
- (3) 유럽사례 → 혁신 매개기구의 설치

앞에서의 실태조사 및 사례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지역 혁신촉진에 의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첫째, 산업집적화를 위해 비즈니스 생태계에서 협동과 혁신의 문화를 구축하고 산학연 네트워크와 시장개척 및 마케팅 지원프로그램과 같은 수요자 중심의 정책 대안을 실천해야 한다.

둘째, 정부주도의 수직적 지원정책을 지양하고 민간의 자발적 이니셔티브를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셋째, 혁신매개기구를 설치해 기업의 혁신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체계적인 지역혁신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II. 성공적 지역혁신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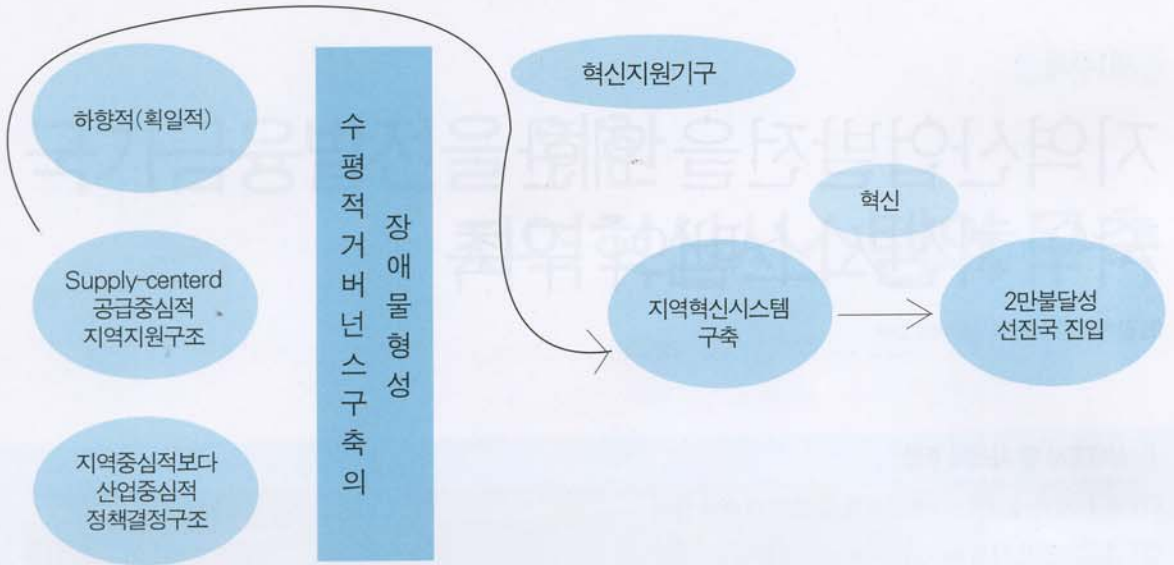
- (1) 지역혁신촉진기구를 설치하자.

□ 혁신지원기구의 필요성

기존의 지역개발정책은 중앙으로부터 획일적인 산업정책의 영향을 주로 받았으며 정책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지역혁신의 핵심 주체는 지역기업, 지방정부, 대학 및 연구소이고 이들간 수평적 협력관계와 시너지 창출이 성공의 관건이다. 따라서 성공적 지역혁신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기존의 수직적 정책구조를 타파할 만한 민·관 합동의 강력하고 창의적인 혁신지원기구가 필요하다.

□ 모델 제시 (대구/경북)

지방정부와 민간주체가 공동 참여하는 혁신지원기구를 설치하여 지역개발에 관한 정책의 입안 및 실천과 함께 기업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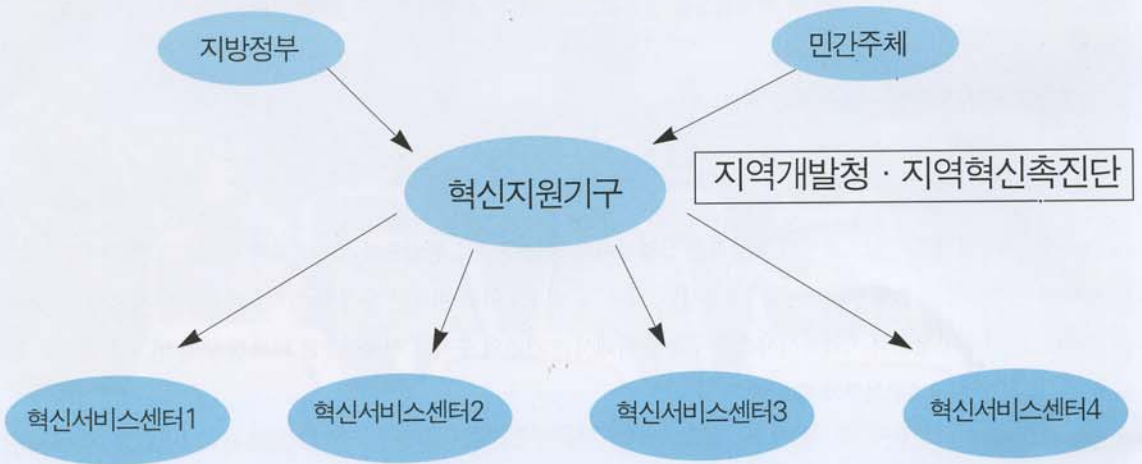


혁신활동을 지원하는 혁신서비스센터들을 권장하게 한다.

□ 지방정부와 매개기구와의 관계

혁신지원기구는 지방정부로부터 지역개발정책의 수립과 실천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는다. 그러나 전반적인 정책지침과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 및 자금지원은 지방정부로부터 받는다.

· 혁신지원기구(지역혁신촉진기구) : 지방정부를 대신하여 지역개발 발전에 대한 총괄적인 계획 및 실행업무를 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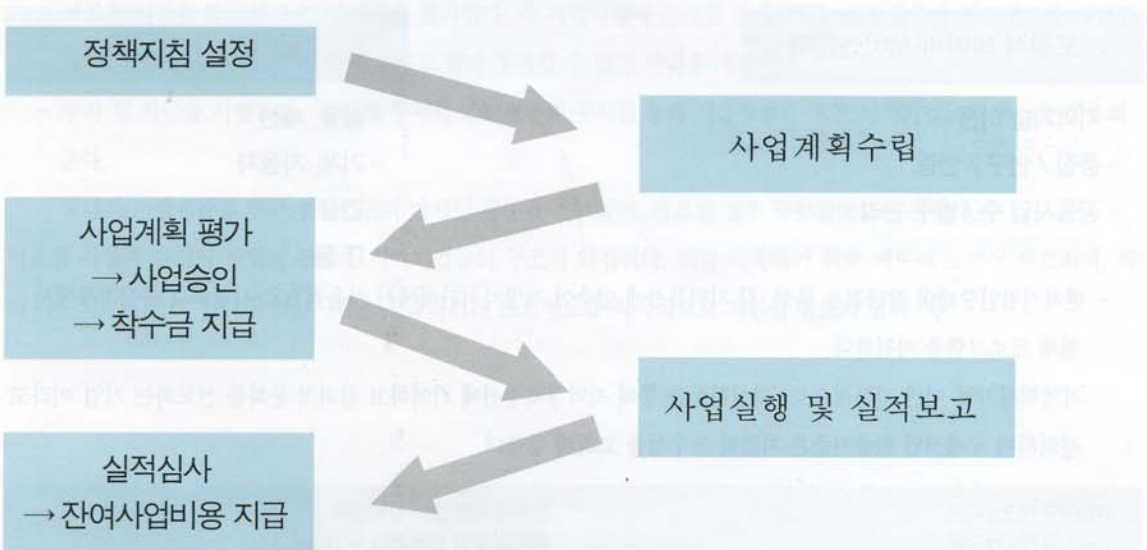


SEMINAR

- 혁신서비스센터 : 산업별, 기능별로 기업의 혁신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 혁신서비스센터는 현재 각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지원센터를 강력하게 구조조정하여 재구성하고, 새로이 필요한 부분은 민관이 협력해 공동으로 설립한다.

지방정부

매개기구 (혁신지원기구, 혁신지원센터)



- 기존의 혁신지원센터들은 근본적으로 하향식, 공급자 중심의 제한된 역할만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거버넌스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존조직의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한 혁신 주체로의 탈바꿈은 전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

(2) 혁신서비스센터를 통해 기술혁신을 실질적으로 지원하자.

□ 혁신서비스센터는 상위 기구인 지역혁신지원기구의 지휘와 조정을 받는다.

산업을 포괄하는 포괄적 의미의 센터와 산업별로 세분화 된 분야별 센터로 구분할 수 있다.

□ 혁신서비스센터의 구성은 신설뿐만 아니라 현재 각 지역에 소재한 각종 센터를 활용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기존 센터들의 거버넌스 구조에 대한 개혁이 불가피함.

현재 대구·경북지역에는 정부의 각 부처로부터 지원을 받은 다양한 혁신서비스센터들이 존재한다. 이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지원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지역혁신지원기구에서 담당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새로운 혁신서비스센터의 설치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3) 지역의 혁신기업에 대한 포괄적 지원책을 마련하자.

□ '지역혁신기업' 인증제 도입

지역혁신지원기구

포괄적 의미의 서비스센터

- 지역기술 이전
- 품질 / 연구 / 인증
- 공동사업 수 · 발주 관리

분야별 서비스센터

- 섬유, 패션
- 기계, 자동차
- 건설
- IT 등

- 벤처기업인증제의 장단점을 분석, 각 지역특성에 맞추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중앙정부에서 전체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 '지역혁신기업'이란 기본적으로 '혁신활동을 통해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창의적 문화를 선도하는 기업'이라고 정의하며 구체적인 인증기준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정한다.

(재)대구 테크노파크
 한국섬유개발연구원
 대구 기계 부품 소재 기술 혁신센터
 대구 디지털 산업 진흥원
 경북대 센서 기술 연구소(ERC)
 계명대 디자인 산업 진흥센터

경북대 재료 연구 정보센터
 경북대 공학 설계 기술원(TIC)
 경북대 기계 연구소
 계명대 저공해 자동차 부품 기술 재개발센터(RRC)
 경북대 반도체 공정 기술 교육 및 지원센터
 경북대 생체 분자 공학 실용화 연구센터(RRC)

창업 보육센터(9개)
 경북대학교/경북외국어테크노대학/계명대학교
 대구기능대학/대구보건대학/대구산업정보대학
 영남이공대학/영진전문대학/중소기업진흥공단

산학연 컨소시엄센터(7개)
 경북대학교 / 계명대학교 / 영남이공대학교
 영진전문대학교 / 대구기능대학 / 대구보건대학 / 대구산업정보대학

- 기존의 벤처인증 기준인 연구개발투자비중, 벤처캐피탈 자본의 유입, 특허제품의 매출 등 외에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와 성장잠재력 등을 추가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인증기업에 대한 포괄적 지원책을 마련한다. 특히 신용보증에 의한 자금지원, 기술개발지원금, 경영지도, 투자 알선, 코스닥 등록 시 혜택 등이 효과적이다.


지역혁신의 궁극적 주체는 기업인 반면에, 지역기업의 대부분이 영세한 신생 중소기업들이다. 이들은 구조적으로 신규성의 위험(liability of newness)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줄여주기 위한 제도적 지원(institutional

SEMINAR

support)이 필요하다. 초창기 벤처사업의 발전에 기여한 벤처기업인증제를 원용해 '지역혁신기업' 인증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혁신 기업들의 초기 개발위험과 경영 리스크를 제도적 차원에서 줄여준다면 보다 효과적인 지역 혁신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 시장창출지원센터의 설치

- 지방정부, 대구TP, 민간경제단체, 금융기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 새로운 시장을 발굴하고 그 잠재력을 평가한다. 즉 지역역량에 근거한 잠재력있는 시장창출령 프로젝트를 개발한다. 특히 다수의 지역기업들이 협력하고 합작 투자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한다.
- 투자 및 자금을 시행한다. 즉 자체 투자와 민간자본의 유치를 통해 시장창출을 위한 지역기업들이 위험을 공유해 준다.
- 국내의 시장진출을 위한 전략입안과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며, 필요한 경우 공동판매를 주선한다.

협소한 시장과 마케팅 경험의 부족은 지역기업들의 구조적 약점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다수의 기업들이 협력해 신규시장을 창출하려는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중심기업	협력기업	주요사업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신차개발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신차개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신차개발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신차개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신차개발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신차개발

제2주제

지역혁신시스템의 구축과 지역금융

- 지역금융 산업의 재편을 위한 과제 -

이지연 |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 지역금융의 활성화 방안

I. 우체국금융의 개편

(1) 우체국 금융의 문제점

- 우체국 금융의 확대는 지방은행이나 농협 등 지역서민 금융기관의 건전한 성장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문제를 야기
- 불공정경쟁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효율성 저해
- 우체국예금에 대한 국가의 지급 보장은 경쟁의 형평성 문제와 도덕적 해이 문제를 초래

우체국금융과 민간금융기관의 비교

	민간금융기관	우체국금융
운영주체	민간	정보통신부
지준예치의무	부담	면제
예금보험료 부담	부담	면제
법인세 부담	부담	면제
시설투자 부담	고정자산투자 부담	정부시설 이용
건전성 감독	금감원 감독, BIS 규제	규제 없음

- 우체국 금융을 통한 지역서민자금으로 재정적자를 보전(일반회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문제
- 금융감독의 실효성 저해
- 우체국예금은 중앙은행의 효율적인 통화정책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우체국예금의 확대는 금융자율화를 통한 금융시장의 효율성 제고라는 정부의 기본정책에 비추어 볼 때 부적절

SEMINAR

(2) 외국사례

- 세계적으로도 금융자율화에 따라 정부가 직접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민간 금융기관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강조하는 추세
- 외국의 우체국금융은 소유구조 측면에서 크게 정부기관형, 공사형, 주식회사형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대부분의 유럽 선진국에서 우체국금융은 정부로부터 독립된 公社로 운영되고 있어 우체국은 행정기관이 아니라 경영의 독자성을 갖춘 법인이며 우체국 예산은 정부 예산과 구별됨

(3) 개편방안

- 민간 금융기관의 발달로 인해 금융의 대중화에 이바지한다는 우체국금융의 설립취지(공공성 또는 대중성)가 퇴색되고 있어 우체국 금융을 확대할 이유는 감소
- 우체국 금융의 개편은 정부가 직접경영하는 금융기관의 공공성·효율성 및 국내 금융산업의 구조개혁과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과제
- 우체국 금융과 민간 금융기관의 공정경쟁체제 확립
- 우체국 금융 개편의 기본방향은 우선 기본적인 금융업무(우편환 및 우편대체업무 등) 및 판매대행업무(fee base)에만 집중함으로써 더 이상의 업무확장을 방지하고 향후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
- 일정기간 후(5년 정도) 우편부문을 공사화·민영화하면서 금융부문은 분리하는 동시에 민영화를 추진(지방은행이나 농협으로의 이관)

II.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시정 : 투신산업의 재벌독점 방지

(1) 대형투신으로의 자금 집중문제와 부실투신 문제

- 재벌계열 대형 투신운용사에 의한 투신시장의 과점체제로 금융시장의 안정성 저해
 - 재벌계열 투신운용사로의 자금집중과 투신시장의 과점체제로 이해 상충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경제력 집중에 따라 금융산업의 안정성이 저해될 뿐만 아니라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현상도 심화
 - 산업자본의 금융지배가 확대됨에 따라 신탁재산 운용과정에서의 계열사지원 등 재벌의 사금고화 및 동반부실 우려(지역자금의 부실화는 지역경제에도 치명적).
 - 2003년 10월 현재 국내 투신시장은 한투·대투 및 4대 재벌계열사가 지배하고 있어 자금 집중문제 상존
 - 한투(17조원), 대투(18조원) 및 4대 재벌계열사(삼성 22조원, 현대 17조원, LG 7조원, SK 2조원)의 수탁고는 83조원에 달해 전체수탁고(155조원)의 54%를 차지하고 있음

(2) 개선방안

- 완전경쟁 자산관리시장으로의 전환



- 정부는 투신산업에 내제된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점체제를 이루고 있는 투신시장을 중장기적으로 뮤추얼펀드 중심의 완전경쟁 자산관리시장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추진
- 재벌의 사금고화 방지와 더불어 지방채 및 지방회사채 편입 등을 유도
 - 지방 소재 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확대하여 이를 신탁재산에 편입시키고,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지방채도 편입하도록 유도
 - 또한 지역기업의 직접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고, 지방채나 지방회사채의 유동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지방공사채시장 육성 등)

III. 생보사에 의한 지역자금 역외유출 완화 방안

(1) 문제점

- 생보사를 통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현상 극심
 - 보험사의 경우 지방에서 80조원을 예수금으로 흡수한 반면 24조원만을 지방에서 대출로 운용하고 있음

(2) 개선방안

- 지역자금의 환원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에서 조성된 자금이 지역기업에 대한 대출로 운용되도록 유도
 -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지역재투자법(Community Reinvestment Act)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
 - CRA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기업 및 저소득계층의 지원을 장려하기 위하여 1977년 제정되었으며 최근에는 점진적으로 적용 범위와 내용이 강화
 - CRA는 미국의 모든 은행에 대하여 지역의 중소기업과 저소득계층에 대하여 대출자금 수요를 충족시켜 주어야 할 책임을 부여하고, 감독관청으로 하여금 CRA에 의거한 평가등급에 따라 합병이나 지점개설 등의 인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
 - 우리나라도 정부가 금융기관들에 대해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을 강제하기보다는 금융기관들이 일정 수준의 신용을 가진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거부를 금지하는 제도를 도입하거나 미국의 CRA에서와 같이 영업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해 기여한 실적을 보고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IV. 지방은행의 경쟁력 강화

(1) 지방은행의 경쟁력 저해요인

- 시중은행과의 자산규모 격차 심화에 따른 규모의 비경제성
- 자금조달보다는 자금운용상 어려움 증대

SEMINAR

- 지방은행의 취약한 수익구조
- 고객 및 성과중심의 조직체계 미흡
 - 조직의 유연성 미흡, 인사적체 등에 따른 직원의 동기부여 미흡
 - 성과중심의 조직시스템 및 기업문화 미흡

(2) 지방은행의 경쟁력 강화 방안

- 자금운용방법의 다양화
- 은행신탁의 투신권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통해 은행신탁의 대출 여력을 증대
- 수익구조의 다변화
- 조직의 경쟁력 강화
- 지방은행으로서 이러한 경쟁력 강화방안 전부를 일시에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으므로 지역특성에 맞는 부분부터 특화

V. 지방은행의 중소기업대출 기능제고(Relationship Banking)

(1) 문제점

- 지역금융기관, 특히 지방은행의 지역 중소기업대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점이 있음
- 첫번째는 기업대출에 있어서 시중은행에 비해 지방은행의 가격경쟁력이 낮고 정보경쟁력도 점차 저하되는 추세
- 두 번째는 지역영세기업의 금융소의 문제

(2) 개선방안

- 지방은행의 지역 중소기업금융에서의 역량 강화
- 지역수준에서 지역기업에 대한 신용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
- 신용보증 및 신용대출 기능의 제고

VI. 상호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의 경영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다수의 상호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이 영업정지, 인가취소, 해산, 합병 등을 통해 정리되어 영업이 크게 위축
- 대폭적인 구조조정과 공적자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상호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의 부실채권 비율은 매우 높은 수준

(2) 개선방안

- 상호저축은행은 지역에 밀착해오면서 축적된 서민금융에 대한 노하우를 활용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영세기업과

개인에 금융편의를 제공하는 서민금융기관으로 전문화하는 전략을 추구

- 신용협동조합 단위조합은 일반 금융기관에 대하여 비교우위가 있는 조합원 밀착경영을 더욱 강화
- 새마을금고의 발전방안
 - 회원금고를 지원할 수 있는 연합회 기능을 강화
 - 지원에 필요한 적정 인원의 보강 및 전문인력의 확보를 통해 업무지원을 확대

Ⅶ. 상호금융의 발전방안(농협을 중심으로)


(1) 현황

- 농협 상호금융의 성장율은 금융위기 이후 급속히 저하되었으나 2000년 증가세로 반전
- 상호금융의 자금조달·운용 및 예대비율

(2) 문제점(금융시장으로부터의 위협요인)

- 일반은행의 소매금융 확대와 사이버금융의 확대로 경쟁이 격화되면서 농협 상호금융의 성장이 둔화될 전망
 - 예수금의 경우 비과세 혜택과 고금리로 인해 높은 성장을 지속하여 왔으나 금리격차 축소 및 은행의 소매금융확대 영향으로 성장률이 현저히 둔화될 수 있음
 - 대출의 경우 국내 농업투자 수익성 하락에 따른 농촌지역에서의 자금수요 감소, 일반은행과의 경쟁심화를 반영하여 대출 증가율 둔화

(3) 개선방안

- 가격 및 비가격 경쟁력을 확대
 - 가격경쟁력 확대를 위해서는 요구불 예금 등 저원가성 자금 비중을 늘리며 자본금 등을 확대하여 조달원가를 절감
 - 또한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여 비가격 경쟁력을 제고하여 예수금이나 대출금의 가격탄력성을 하락시킴
- 예대율의 확대를 위해서는 대출수요가 증가하여야 하며 농협의 대출 활성화 노력이 필요
 - 이를 위해 건전성감독 강화를 통한 동일인 대출한도를 은행권수준으로 인상하여 담보위주 관행에서 탈피하여 고객신용평점시스템(CSS) 등의 도입을 통한 선진적인 대출체제를 구축
 - 중앙회 신용사업과 회원조합 상호금융업무와의 영업지역 및 업무영역을 확실히 설정함으로써 두 기관간 경쟁 발생여지를 제거 

안개가 끼면 비행기가 이착륙하지 못하는 이유

자동차는 비가 오면, Wiper나 Rain repellent로 빗물을 제거하여 시야확보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행기는 고속으로 이착륙하기 때문에 Windshield(조종석 유리창)로 향하는 빗물을 바람에 의해 다 날려 보내 Wiper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아주 심한 폭우가 아닌 이상 내리는 비는 상관이 없지만 가시거리, 시정 확보문제입니다.

요즘의 비행기는 첨단 전자장비가 탑재되었고, 비행장에서는 ILS라는 착륙유도 장비가 비행기를 정확히 유도해줍니다. 그리고 ILS 유되는 상황이 공항 활주로 위치와 정확하게 그림으로 조정식 계기화면에 표현됩니다. B777이나 B737-800/900형은 GPS로도 유도 및 위치 파악이 되기 때문에 다른 기종보다 더 정밀하게 착륙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장애 요소들이 따릅니다.

첫째, ILS 및 비행기는 시정에 따른 착륙할 수 있는 등급 Category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CAT-1, CAT-2, CAT-3입니다. 각 등급을 보면 CAT-1 시정 800m 이상일 때 착륙 가능한 활주로입니다. CAT-2는 350m 이상일 때, CAT-3a는 200m 이상, CAT-3b는 50m 이상, CAT-3c는 0m(제한 없음)입니다. ILS는 공항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항의 활주로의 CAT 등급에 따라 비행기가 착륙하거나 못할 수 있습니다. 김포공항의 경우 CAT-2 등급인데 시정이 350m 이하 일 때는 이착륙이 안됩니다. 인천공항의 경우 지금 CAT-3b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공항만 CAT등급이 있나? 아닙니다.

두 번째, 비행기에도 CAT등급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종이 있는데 이 기종이 착륙할 수 있는 등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로 737이 있는데, 비행기 등급은 CAT-1이다. 이착륙시 시정이 800m 이하이면 착륙을 못합니다. 김포공항은 CAT-2라서 시정 350m면 착륙은 되지만, 이 비행기의 CAT등급은

그보다 못하기 때문에 착륙을 할 수 없습니다. 비행기 성능과 착륙 장비 등급문제가 있는데 전자장비 등을 교체하거나 새로 설치할 경우 CAT 등급 시험 비행을 하면서 합격판정이 나오면 그 비행기의 이착륙 등급을 올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조정사의 자격문제입니다. 조정사는 여러 가지 훈련과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때 CAT-III rating이라는 것이 있어서 공항과 비행기가 CAT-III 등급 자격을 갖추었는데 조정사가 CAT-III 자격이 안되어 있으면 조정사의 자격부족으로 비행기를 이착륙 시키지 못합니다.

네 번째, 도착공항 문제입니다. 뉴스를 잘 보면 지방공항과 서울발 비행기들은 모두 결항인데 국제선만 운항한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국내선은 주로 1시간 이내입니다. 기상영향도 그만큼 전국적인데 김포에서 출발한다 해도 울산, 포항, 제주, 김해 등의 날씨가 안 좋으면 착륙 못하고 다시 김포로 회항합니다.

다섯 번째 문제가 바람입니다. 날씨가 안 좋으면 강풍이 불 수 있습니다. 비행기는 기종별 바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정풍 Headwind는 100노트가 불어도 비행기의 양력을 발생시키는 좋은 바람이지만 Cross Wind라는 측풍은 일정 기준치 이상이 불면 비행기 엔진을 돌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엔진의 입구는 전방을 향하고 있어서 공기가 엔진으로 들어와서 압축·연소시켜 추력을 생성시키는데 엔진 옆에서 불면 엔진내로 공기 유입이 안 되어서 엔진내부가 Stall이 걸려 작동을 못하거나 엔진 내부를 파손 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저런 문제 때문에 비행기는 뜨지 못합니다. 외국은 항공기에 대한 이해가 커서 이런 이유로 이착륙 못하면 그런가 하고 이해하고 보는데 우리는 이해 못하고 주먹과 항의농성이 먼저인데 조금 답답합니다. ❄️

영호남이 손잡아야 균형발전 된다!



정중부 | 한국산업협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03년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광주에서 열린 산업기술박람회 행사의 일환으로, 영호남산학협동교류행사가 있었다. 산학경영기술연구원의 최만기 원장과 한국산학협동연구원의 박성수 원장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날 영호남 산학인들은 광주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정성들여 개발한 신제품들을 둘러본 후 중소기업 본청 유창무 청장의 기조연설에 이어 참여정부의 중소기업 육성 방향에 대한 진지한 토의도 있었다. 특히 영호남교류행사가 의미가 있었던 점은 영남·호남지역의 학계, 업계 대표들이 모여 1박 2일 동안 더불어 지내면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자리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 동안 영호남간의 만남 행사는 많았지만 이번처럼 산업계, 학계가 산학협동차원에서 같이 지낼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었다.

이날 세미나에서 산학협동이야말로 지역의 경쟁력을 키우는 건인차가 된다는 점에서는 이론이 없었으며, 그 동안 지역갈등의 대명사처럼 되어온 영호남 문제가 더 이상 정치인들에게 정략적으로 악용되는 빌미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데 뜻을 함께 하였다. 이제부터는 지역끼리 자웅을 겨룰 것이 아니라 갈수록 괴리가 커져 가는 서울지역을 따라 잡는 일이 급선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며 힘을 모으자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우리 네 인간은 그야말로 부대끼며 더불어 살아야 사람이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서로 갖지 못한 부분을 보완해 주며 배려해줄 때, 인간이 만든 협동시스템으로서의 시너지 효과는 더없이 크다. 그런데 상호간에 이해의 영역이 넓지 않고서는 상대방을 헤아려 줄 야량이 없다. 좁은 소견으로 불신을 떨쳐 버리지 못할 때, 오해와 미움이 앞서게 된다.

그렇다면 해답은 자명하다. 틈나는 대로 빈번히 얼굴을 맞대고 부단히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 그래서 의사소통에는 면대면(face to face)의 기법이 가장 효과적이며 선호도가 높다.

영남지역의 경북대, 울산대 학생들과 호남지역의 전남대 학생들의 교류프로그램이 양 지역의 단연 성공적인 예로 꼽힌다. 직접 상대방 지역에 와서 학교를 다니며 체험한 학생들의 소감은 하나같이 꺾여 보지도 않은 채 막연히 가졌던 선입견의 문제를 지적한다. 영호남지역 젊은이들의 진솔한 대화와 정겨

대구의 밀라노 프로젝트가 먼저냐, 광주의 광산업 프로젝트가 먼저냐의 논쟁도 그렇다. 일찍이 섬유산업의 메카로 대구를 익히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소외된 우리 지역의 광산업 프로젝트가 한참 뒤져있다고 보기 때문에 재론의 여지가 없는 문제인데도 그렇지 않은 않았다. 그들은 광산업 육성을 위해 정책적인 지원이 있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밀라노 과제 지원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더구나 업계가 아닌 학계 쪽에서 나온 주장이라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였다


결국 오랜 토론 끝에 현재의 플랜은 영호남 지역 모두 근본적인 지역경쟁력 강화차원이 아닌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공감하고, 이제 앞으로의 당면과제는 더 이상 수도권지향의 아닌 지역균형발전지향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는 데서 재론의 여지가 없었다.

운 모습에서 우리 지역의 밝은 미래가 보인다. 군대생활을 상대방 지역에서 해본 사람은 처음에 구성원들의 경직된 편견(stereotyping) 때문에 힘들었던 순간들을 잊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의 진실을 확인하고 나면 더없이 가까워져 절친한 사이가 되었던 경우도 많았지 않는가?

이번 영호남 산학인간의 만남도 예외는 아니었다. 저녁식사를 한식으로 하면서 앞에 걸린 「嶺湖南産學人의 만남」이라는 현수막의 한자글씨가 유달리 의미가 있어 보였다.

泰山峻嶺과 大湖가 만났으니 이 아니 좋은가? 두말할 것도 없는 명당 중의 명당이다. 그래서인지 처음에는 서먹서먹하였지만 밤이 되면서 많은 대화가 오고 간 뒤로는 자정을 넘겨서까지 이야기 꽃을 피울 정도로 이해의 폭이 넓어져 갔다. 이를테면 대구의 밀라노 프로젝트가 먼저냐, 광주의 광산업 프로젝트가 먼저냐의 논쟁도 그렇다. 일찍이 섬유산업의 메카로 대구를 익히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소외된 우리 지역의 광산업 프로젝트가 한참 뒤져있다고 보기 때문에 재론의 여지가 없는 문제인데도 그렇지 않은 않았다. 그들은 광산업 육성을 위해 정책적인 지원이 있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밀라노 과제 지원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더구나 업계가 아닌 학계 쪽에서 나온 주장이라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였다

결국 오랜 토론 끝에 현재의 플랜은 영호남 지역 모두 근본적인 지역경쟁력 강화차원이 아닌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공감하고, 이제 앞으로의 당면과제는 더 이상 수도권지향의 아닌 지역균형발전지향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는 데서 재론의 여지가 없었다. "이제 문제는 영호남이 아니라 서울이다."라고 입을 모으면서.

이제 영호남은 공동운명체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힘을 모아 산학협동을 통해 지역경제발전을 선도하는 연구원으로 거듭나야 한다. 프로젝트도 함께 하고, 연구사업도 함께 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라는 일체감을 증대시켜 나가야 하겠다. 



제163차 월례세미나 개최

지난 11월 6일(목) 14:30~18:00까지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강당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혁신시스템의 구축」이라는 주제로 '2003년도 대구경북지역 발전 심포지엄'을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김주훈 본부장)와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먼저 정해왕 한국금융연구원장의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금융」이란 기조강연이 있었으며, 제1주제 「지역산업발전을 위한 지역혁신시스템의 구축」을 이장우 경북대학교 교수가 발표한 이후 권업 계명대학교 교수, 이성근 영남대학교 교수, 장재홍 산업연구원 균형발전팀장이 지정토론을 하였다. 제2주제 「지역혁신시스템의 구축과 지역금융」을 이지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이후 공재식 대구대학교 교수, 권영섭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진병용 대구은행 금융경제연구소장의 지정토론이 있었다.

제137차 이토회 개최

지난 12월 13일(토) 오후 3시 앞산에서 제138차 이토회를 가졌다.

신입회원을 환영합니다



■ 이형래

- 영남의정신문사 편집부국장
- 생년월일 : 1964. 1. 4
-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4가 272-1
- TEL : 053)423-1188



회원동정



■ 김동구

김동구 (주)금복주 대표이사는 12월 6일 대구·경북지역 166개 고교에 4/4분기 장학금 4천630만원을 전달



■ 김영재

김영재 동국대학교 상경대학장은 11월 24일~26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위원으로 연수차 금강산(육로) 방문

· 10월 28일 (주)대구백화점 구정모 대표이사(본원 부이사장) 초청 기업의 인재상 이란 주제로 특강 개최

· 9월 26일 포항MBC 보도특집 '청년실업 대처방안' 좌담프로그램에 패널로 참석



■ 김재구

김재구 성덕대학 산학협동처장은 중국 대련시 및 복주시의 우수교육기관 벤치마킹을 위해 12월 18일 출국, 22일 귀국



■ 김주훈

김주훈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장은 12월 15일 국민은행 대구영업지원센터 서도교 과장 등 올해 한국은행의 발전, 국고 및 통화금융통계 업무에 기여한 대구경북지역 금융기관 영

업점 및 직원에 대한 한국은행 총재 포상행사를 개최

· 17일 안동 70사단을 방문하여 국군장병 위문금을 전달하고 군의 노고를 치하

· 12월 이성태 한국은행 부총재를 모시고 '통화정책의 과제' 라는 주제로 산학경영기술연구원 월례세미나를 겸한 특별 강연회 개최



■ 심상철

심상철 경북대학교 공업화학과 교수는 11월 22일 ~ 27일 일본 북해도 대학에서 개최된 제14회 국제심포지엄 '차세대 분자촉매화학' 에서 기조연설

· 과학기술부 기초과학 연구사업 심의위원회 위원 임명 (2003년 12월 ~ 2005년 12월)

· 12월 6일 ~ 9일 「제7회 영남-간까지역 심포지엄(유기금속화학협동심포지엄)」에서 좌장



■ 우철구

우철구 영남대학교 정행학부 교수는 일본 홋카이도 대학에서 열린 국제학술회의에서 「세계화 시대에 UN의 역할」이란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하기 위해 12월 19일 출국, 23일 귀국



■ 윤지현

윤지현 성덕대학장은 12월 17일 국회도서관에서 성덕대학 국회도서관 간의 인적교류 및 학술정보 상업협력협정을 체결



■ 이병찬

이병찬 계명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장은 11월 7일 대구광역시가 주최한 「2003 대구중소기업인 대회」에서 중소기업 육성지도에 기여한 공

로로 대구광역시시장으로부터 표창장을 수여받음

· 12일~16일 중국 천진시의 남개대학교에서 개최된 제3회 한·중 국제학술세미나에 계명대학교 교수 4명을 대동하여 참석

· 15일 중국 남개대학교에서 개최된 Corporate Governance에 관한 제2차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

· 23일~27일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에서 '한·일 경영 및 경제의 제문제' 라는 주제로 제23회 한·일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 이옥기

이옥기 (사)여성중앙회 대구지부회장은 12월 15일 임원들과 함께 「자비의 집」을 방문, 성금을 전달하고 자원봉사자들을 격려



■ 이인중

이인중 화성산업(주) 동아백화점 대표이사는 12월 3일 대구시청에서 조해녕 시장으로부터 지역사회 발전과 대구사랑운동에 앞장서왔고 건전



회원동정

소비문화 정착 및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장을 받음



■ 이종준

이종준 계명문화대학 경영과 교수(평생교육원 원장)는 계명문화대학 평생교육원 생활 도자기 과정에서 휴사랑 회원들이 1년동안 갈고 닦은 솜씨를 대덕문화전당 특별전시실에서 12월 8일 ~13일까지 '제4회 휴사랑 전시회'를 개최, 이 자리에서 회원들의 끼와 재능 격려



■ 조봉진

조봉진 계명대학교 경영대학 교수(한국창업보육협회 차기회장)는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일본 Fukuoka에서 개최된 International Venture Festa in Fukuoka에 KOBIA(한국창업보육협회)를 대표해 참가업체를 인솔, 참가

- 17일 서울 과학관에서 개최된 한국박물관경영·마케팅 학회 창립총회에서 '비영리조직의 고객관계관리(CRM)'라는 제목으로 기조강연
- 11월 20일 EXCO에서 개최된 영남대학교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가 주관한 2003년도 중소기업인 경영학술대회에 토론자로 참석



■ 조재룡

조재룡 (주)한국중소기업컨설팅 대표이사는 중소기업청 지원 1차 해외 규격인증획득지원실시(ISO 14000, QS 9000, TS 16949의) (신청접수 : 2003년 12월 22일 ~ 2004년 1월 20일)

- 11월 15일 ~ 22일까지 미국 LA 컴덱스 참관 및 세미나(세계 IT 동향분석) 참석
- 12월 16일 포항시청에서 개최된 2003년도 포항시청 지원 ISO9001인증에 따른 인증서 전달식 참석



■ 최경호

최경호 계명대학교 기계·자동차공학부 교수는 환경부 주최로 열린 제6회 환경기술상 시상식에서 「중소형 경유차량에 대한 LPG차량 개조기

술」로 우수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상



■ 허진학

허진학 (주)제이팩 대표는 12월 18일 경상북도와 매일신문사가 공동으로 주최한 「2003 경북중소기업대상」 시상식에서 경영부문 대상 수상



■ 김극년

- 김극년 본원 고문(대구은행장)은 12월 11일 대구시 교육청을 방문, 신상철 교육감에게 대구시내 각급 학교의 학습기자재 구입에 써 달라며 3천만원을 기증
- 15일 포항지역 인사들을 초청, 「상대동지점」 이전식을 가진 후 포항시 남구 대잠동 소재 무료양로시설인 「성모자애원」을 찾아 성금을 전달하고 위로
- 17일 대구시 동구 검사동 한국 SOS어린이마을을 방문, 시설 대표인 장효원 신부를 만나 어려운 처지에 놓인 어린이들을 위해 성금을 기탁



■ 노희찬

노희찬 본원 고문(대구상공회의소 회장)은 12월 22일 대구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2003년 대구산업대상 시상」 및 「상공인 송년회」를 가짐



■ 조해녕

- 본원 고문(대구광역시장)은 12월 22일 대구 달성군 논공읍에 위치한 가톨릭치매센터를 방문, 환자들을 위로하고 위생대와 휴지, 라면 등 146만원 상당의 위문품 전달
- 26일 대구시의회 송년다과회에 참석한 뒤 대구파크호텔 국화홀에서 열린 대구발전동우회(회장 · 이인중 동아백화점 회장) 송년의 밤 행사에 참석, 회원 100여 명과 간담회를 가짐



■ 최용호

최용호 본원 명예원장(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은 11월 2일 일 본 교토대학 上海센터의 개설기념



회원동정

국제심포지엄에서 「한국의 대중투자 및 교역의 동향과 전망」이란 논문 발표

- 6일 대구경북섬유산업협회가 주최한 섬유산업발전 토론회에서 「지역섬유산업 재도약을 위한 전략」을 발표
- 14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정책자문위원회에서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에 대한 의견 개진
- 20일 나고야대학의 동아시아 공업화 연구회의 제4차 워크샵에서 '세계화와 한국의 중소기업'에 대해 발표
- 21일 도요타그룹의 모토마치(元町)공장과 도요타회관 방문
- 22일 나고야대학 국제경제동태연구센터의 제19회 국제학술심포지엄에서 "글로벌화와 한국기업의 諸문제"라는 논문 발표



로로 표창장을 받음

■ 구정모

본원 부이사장((주)대구백화점 대표이사)은 12월 3일 조해녕 대구시장으로부터 지역사회발전과 대구사랑운동에 앞장서고 건전 소비문화 정착 및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한 공

축하합니다

- 이기부 영남이공대학 교수 장녀 결혼 : 2003년 12월 20일(토) 오후 2시 대구 범어교회



단행본 및 연구보고서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개척 3개년 로드맵", 2003. 11
 공정거래위원회, "2003 공정거래백서", 2003. 11
 과학기술부, "대학교수 특허경비지원사업", 2003. 7
 삼성경제연구소, "SERI 전망 2004", 2003. 12
 삼성경제연구소, "글로벌 금융그룹의 성장전략과 시사점", 2003. 11. 19
 삼성경제연구소, "유럽 경제통합을 읽는 7대 키워드", 2003. 11. 26
 삼성경제연구소, "가정의 디지털 혁명, 홈네트워크", 2003. 12. 3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대구·경북지역 자동차부품산업의 현황과 과제", 2003. 11
 한국은행 조사국, "제로금리 하에서의 통화정책", 2003. 11
 한국은행 조사국 해외조사실, "1980년대 이후 영국의 經濟改革 推進 內容과 그 成果", 2003. 11

정기간행물

경남발전연구원, "경남발전", 2003. 11
 경북테크노파크, "KTP헤드라인", 2003. 10 · 11
 금융결제원,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2003. 10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달서", 2003. 12
 대구상공회의소, "대구상의", 2003. 11 · 12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DYETEC VISION", 2003. 12
 대구은행, "대은행재리뷰", 2003. 9 · 10
 대구은행, "향토와 문화28 - 우리의 소리와 춤", 2003. 10. 31
 산학연종합센터, "산학정21", 2003. 12. 5
 서울경제, "POPULAR science", 2003. 12
 신용보증기금, "보증월보11", 2003. 11
 열린전북, "열린전북", 2003. 12
 외교통상부/대외경제정책연구원, "OECD Focus", 2003. 11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 2003. 12
 좋은 이웃집, "경제풍월", 2003. 12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e-SME", 2003. 11
 증권거래소, "주식", 2003. 12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동향 분석과 전망", 2003. 가을
 한국무역협회, "무역", 2003. 12
 한국발전연구원, "한국발전 리뷰", 2003. 12
 한국산업기술재단, "KOTEF news", 2003. 12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산기협 기술관리", 2003. 12
 한국산업정보센터, "레이저기술", 2003. 12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장", 2003. 12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대구·경북지역 경제동향", 2003. 10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2003. 11
 한국증권업협회, "증권", 2003. 가을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과 인력개발", 2003. 10
 (주)푸드웰, "가실", 2003. 11 · 12

연구원 소개 및 회원가입 안내

■ 연혁 및 현황

1990년 6월 지역의 학계 교수, 기업체 경영자, 기관 단체 장이 산학협동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일조하자는 순수한 취지로 산업자원부의 사단법인 설립인가를 받아 창립하였으며, 현재 46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 이사장 : 정성진 국민대학교 총장
- 원 장 : 최만기 계명대학교 교수

■ 주요사업

- 산학협동 세미나 개최
- 산업시찰 실시
- 산학리뷰 발간
- 조사분석, 기술개발 연구
- 각종 개발계획 수립 등 연구용역 수행
- 경영자 및 임직원의 교육훈련
- 회원친선 교류사업

■ 회원가입 자격 및 회비

- 학계회원 : 국내외 학계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입회비 5만원, 연회비 7만원)
- 업계회원 : 기업체의 최고경영자 및 임원 (연회비 80만원)
- 유관기관회원 : 금융기관, 유관기관 및 단체의 장 (연회비 80만원)
- 유관개인회원 : 공공기관 및 단체의 장 또는 임원으로서 개인자격(입회비 5만원, 연회비 15만원)
- 영구회원 : 회비 일시납부 회원 (개인 100만원, 기관 1000만원)

■ 연구원 거래은행 계좌

- 대구은행 : 018 - 04 - 304943 - 001
- 예 금 주 : (사)산학경영기술연구원

- 본 연구원에 납부 또는 지원하시는 회비, 연구비 그리고 출연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1항 1호에 의거, 지정 기부금으로 처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원고 및 광고게재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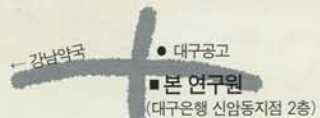
매월 3,000여 부를 제작·배포하는 본 산학리뷰지는 회원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적극적인 원고 기고 및 광고게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 연구원 사무국 T.(053)959-2861~2)

■ 2003년 12월호 (통권 152호)

- 간 별 : 월간
- 등 록 번 호 : 대구라01089
- 등 록 일 : 1998년 6월 2일
- 발 행 소 : (사)산학경영기술연구원
- 발 행 일 : 2003년 12월 31일
- 발 행 인 : 정성진 (국민대학교 총장)
- 편집위원장 : 정인상 (경북대학교 교수)
한성덕 (대구대학교 교수)
- 편집위원 : 김능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대구경북지부장)
김영재 (동국대학교 교수)
김용준 (영남이공대학 교수)
박규진 ((주)에드밸리 대표이사)
박진항 ((주)멀티에드메이저 대표이사)
이동형 (영남법무법인 변호사)
황남성 (영남이공대학 교수)
조정일 · 임재현 · 최영애 (상임연구원)
- 기획·편집 : (주)멀티에드메이저 (053-751-5005)




산학 産學經營技術研究院
 UNIVERSITY-INDUSTRY RESEARCH INSTITUTE

701-814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3동 164-1번지
 TEL. (053)959-2861~2 FAX. (053)959-2860
 http://www.uri.or.kr
 e-mail : uri@uri.or.kr

새해 **福** 많이 받으십시오!


 제13회 茶山金용상 금상 수상

1년 365일

오직 지역만 생각합니다.



꿈과 풍요로움을 지역과 함께 해 온 대구은행은
한결같은 마음과 변함없는 정성으로
새해에도 지역만 생각하는 은행이 되겠습니다.

우리고장 우리은행
 **대구은행** DGB